

대전지역 대리운전 긴급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사업개요

조사기간 : 2020. 4. 29 - 2020. 5. 6

조사기관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사대상 :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조사목적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현장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조사결과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6%, 여성이 4%로 분포되어 응답함.

성별	명	%
남	49	96
여	2	4

표 1 귀하의 성별

○ 응답자 연령대는 50대(47%)가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응답자가 33%로 조사됨.

연령	응답자 (명)	응답율 (%)
40세미만	2	3
40-49세	14	14
50-59세	24	47
60세이상	17	33
무응답	1	2

표 2 귀하의 연령

○ 응답자들의 대리운전 근무 기간은 장기간 일한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근무기간	응답자 (명)	응답율 (%)
1년미만	7	14
1년-5년	22	43
6년-10년	17	33
11년이상	5	10

표 3 귀하가 대리운전 근무기간

○ 응답자들의 근로형태는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가 70%였으며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 응답자 36명 중 1년 미만 응답자 4명을 제외하고는 평균 근무 기간이 6.69년으로 조사됨.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 12명 중 1년 미만 응답자 4명을 제외한 노동자의 근무 기간은 평균 5

년으로 조사됨.

근로형태	응답자 (명)	응답율 (%)
전업	36	70
부업	12	24
무응답	3	6

표 4 귀하가 대리운전 근무기간

○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는 65%가 2-3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들은 평균 2.57개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업체	응답자 (명)	응답율 (%)
1	8	16
2-3	33	65
4개이상	8	16
무응답	2	4

표 5 귀하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현황

○ 응답자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1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51%로 가장 많았음.전업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약 8시간 정도 일하고 있었고,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도 7시간으로 조사됨. 8시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61%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근무시간	응답자 (명)	응답율 (%)
5시간 미만	1	2
5-7시간	19	37
8-10시간	26	51
10시간 초과	5	10

표 6 귀하가 하루에 대리운전을 하는 시간

○ 대리운전 응답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는 25일에서 30일 일하는 노동자가 76%로 분포되었고, 전업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평균 27일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 (명)	응답율 (%)
24일이하	12	24
25-26일	18	35
27-28일	5	10
29일이상	16	31

표 7 귀하의 한달동안 근무일수

○ 응답자들의 1일 콜수는 5에서 7개의 콜을 받는 노동자가 65%로 응답자가 많았음.

업체	응답자 (명)	응답율 (%)
5콜 미만	2	4
5-7콜	33	65
8-10콜	12	24
11콜 이상	1	2
무응답	3	6

표 8 1일 콜수

○ 응답자들의 업무형태는 90%가 1인 혼자 노동하는 분들로 분포되었음.

업무형태	응답자 (명)	응답율 (%)
1인 혼자	46	90
2인 1조	5	10

표 9 업무형태

○ 응답자들의 작년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미만부터 300여만원까지 다양하게 응답함.

월평균 수입	응답자 (명)	응답율 (%)
150만원 미만	10	20
150만원이상-200 미만	11	22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12	24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6	31
300만원이상	2	4

표 10 2019년 월평균 수입규모

○ 응답자들의 한달 보험료는 11만원에서 20만원 지출하는 노동자가 5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1만원 이상 지출하는 노동자도 16명이나 조사됨.

보험료	응답자 (명)	응답율 (%)
10만원이하	3	6
11만원이상-20만원	30	59
21만원이상-30만원	13	25
30만원초과	3	6
무응답	2	4

표 11 한달 보험료 규모

○ 응답자들의 한달 수수료는 26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지출하는 노동자가 51%로 많은 응답자가 나왔고, 7개 전후의 콜수를 받는 노동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수료도 그 범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됨.

수수료	응답자 (명)	응답율 (%)
25만원이하	9	18
26만원이상-50만원	26	51
51만원이상-75만원	9	18
76만원이상-100만원	4	8
100만원 초과	1	2
무응답	2	4

표 12 한달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

○ 응답자들의 월 순수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버는 노동자가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노동자도 9명이나 되었음.

월평균순수입	응답자 (명)	응답율 (%)
100만원미만	9	18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	29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1	41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3	6
250만원이상	3	6

표 13 월평균 순수입

○ 응답자들의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율은 50% 이하로 감소하셨다는 응답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응답자 (명)	응답율 (%)
25%이하	5	10
26%부터- 50% 이하	36	71
51%부터-75% 이하	6	11
76%이상	1	2
무응답	3	6

표 14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율

○ 응답자들의 계약된 업체의 패널티를 묻는 질문에는 콜취소에 따른 벌금이 35명, 의무콜에 대한 요구 3명, 배차제한이 2명 응답함.

콜취소의 경우 벌금으로 1,000원이 있으며, 예전에는 회사가 가져갔지만, 현재는 다음콜한 대리운전노동자가 가져간다고 함.

의무콜의 경우 하루 4콜(코로나 상황으로 3콜로 줄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숙제라고 표현함)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날 콜을 주지 않는다고 함.

또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리운전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대리운전 업체가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함.

○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

- 가입 0%(0) / 미가입 100%(51)

○ 응답자들의 교통사고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3회 이하가 8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1년 이상 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2.13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 (명)	응답율 (%)
3회이하	41	80
4-6회	5	10
7-9회	2	4
10회이상	1	2
무응답	3	6

표 15 교통사고 경험횟수

○ 교통사고·질병 등 사고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함.

	응답자 (명)	응답율 (%)
전체자부담	34	67
산재보험	0	0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	6	12
큰금액의 사고나 질병은 보험, 작은금액의 사고등은 자부담	7	14
기타	3	6

표 16 업무중 사고 및 질병치료비용 처리

사고처리 기타의견 : 면책금 30만원(1), 자비(1), 본인부담(1)

○ 대리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2개 중복선택) 응답자들은 콜비 수수료 인하(47명)와 제도적 규율 강화(34명)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개선할점	응답자 (명)
콜비 수수료 인하	47
제도적 규율강화	34
산재확대 및 4대보험의무화	16
퇴직금, 연차수당인정	10
건당보험 시행	4
기타	1

표 17 대리운전 업무관련 시급히 개선할점

- 업무에서 시급해야 개선해야 할 점 기타의견 : 대리기사 전용보험(1)

○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해 대전시가 해야 할 노동정책(2개선택)으로는 악성업체 공개(32명)와 휴식시설 신설(29명) 순으로 응답함.

정책내용	응답자 (명)
악성업체 공개	32
휴식시설 신설	29
사회복지정책 실시	27
직업알선 및 이직알선	15
재정등 구제제도 마련	15
기타	6

표 18 한달 보험료

- 대전시가 해야 할 노동정책 기타의견 : 대리기사 전용보험(4), 업체갑질(1), 프로그램 전국으로(하나로) 통합(1)

■ 조사내용 정리 및 분석

○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우선 저임금으로 순수입이 150만원을 전후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동자(응답자 대부분이 5-60대)들이 많았고, 노동시간도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저임금인 상황임.

○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에 대해 아르바이트나, 일시적인 노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한달 보험료 11만원이상-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동자 30명을 기준으로 이들의 한달 임금은 평균 194만원이며 수수료는 46.3만원, 월 순수입은 149만원 밖에 되지 않음. 반면 노동시간은 8.1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동시간이 야간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매우 못 미치는 노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 30명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수입 194만원에서 수수료의 경우 23.87%를 차지하고 있고, , 보험료는 15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7.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수입에 비해 너무 높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타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수입의 50% 가까이 감소한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응답한 업무개선 과제에 대해 47명이 콜비 수수료 인하를 응답. 또 제도적 규율을 강화해 업체의 부당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어 산재보험 가입과 퇴직금, 연차수당 인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대전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할 일로는 악성업체 공개와 휴식시설 신

설, 사회복지정책 실시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모색

○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국에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대전지역의 경우 약 3,000명(대리운전노동자들 추정)으로 추정 됨.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약 50만 명 이상이 대리운전을 통해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장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반으로 생계형 전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현장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월평균 순수입이 150만원 내외 인데 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어 있음.

○ 조사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은 0명인 상황임.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율은 7.1%로 나와 있음.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대리운전업에 대한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

○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가장 큰 개선요구로 수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국 평균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콜비 인하와 각종 패널티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함. 또 대전지역은 현재 다른시도에 비해 콜비가 저가로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안모색도 필요함.

○ 대리운전업에 대한 제도마련이 시급하지만, 대전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함. 사회복지정책이나 쉼터 신설 등도 적극적으로 제고해 보아야 함. 대리운전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